2026년 10월 3주차 평촌교회 소그룹 나눔지

리얼크리스찬 (6) 소망을 품은 사람

(베드로전서 3:13 – 22)

✝ 말씀 나누기

1.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의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누군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본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3.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떤 믿음의 결단을 실천할지 나누어 봅시다.

✝ 함께 기도하기

1.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소망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소망을 두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가정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두운 길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소망을 품고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소망의 이유를 삶으로 증거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찬양하기 ♫

이 몸의 소망 무언가(488장)



✝ 설교 요약하기

도입 | 소망은 우리 영혼의 산소(Oxygen)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소망입니다. 직장인들이 금요일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여행을 앞둔 사람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소망 하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의 마음은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의 영혼의 산소와도 같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건강할지라도 소망이 없다면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티크바'는 밧줄을 의미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는 생명의 밧줄과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론 1 | 소망을 품은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은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돈과 건강, 자녀의 성공과 같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과 조롱,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가난과 배신,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하십니다.

어두운 산길에서도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아이가 두려움을 이겨내듯,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서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론 2 | 소망을 품은 사람은 삶으로 대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든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은 어려움 속에도 기쁨과 감사, 평안을 누립니다. 사람들은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예수님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딸이 시력을 잃을 위기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딸의 삶에서 드러난 소망이 믿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기쁨과 감사, 평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망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본론 3 | 소망을 품은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당당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했지만, 심판의 날에 노아와 그의 가족 여덟 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칙필레의 창업자 트루엣 캐시는 주일 영업을 포기하고 예배를 우선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비판에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물질과 명예, 성공을 좇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자신의 능력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에 어떤 풍파 속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소망의 이유를 삶으로 증거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에 세상의 조롱과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하는 환경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어떤 어둠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빛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